



우수작

## 인간의 유통기한

MBC <로열 패밀리>와 KBS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정안진

Made in Korea

지난겨울, 학원물도 성장물도 아닌 그렇다고 미스터리물도 스릴러물도 아닌 그 모양새가 기괴한 한 드라마가 탄생했다. 태생이 궁금한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이하, <화크>)는 전국 상위 0.1%의 우수 학생들이 모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라는 가상의 배경으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2월 31일까지 8일의 기간 동안, 주인공들이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받은 의문의 편지에 대한 해독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애초 시작과는 달리 중반 이후부터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연쇄 살인마로 인해 극의 내용이 전환되는 모양새를 띤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극 초반의 모든 설정과 사건, 갈등들이 중반부터 바뀐 내용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차근차근 쌓아둔 장치라는 것이다.

이렇듯 조금은 낯선 모양새로 찾아온 드라마 <화크>의등장이 신선하다 느낄 무렵, 우린 또 다른 하나의 드라마를 만나게 된다. MBC 수목드라마 <로열 패밀리>(이하, <로열>)가 바로 그것일진대 재벌가의 암투로 내용이 시작되었다가 한 인간의 존재의 증명을 다루면서 끝이 나는 구성이 <화크>의 모양새와 매우 닮아 있다. 그리고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의 끝이 묻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인간’이었다는 점에서 <화크>와 <로열>은 그 궤를 같이한다. 즉, <화크>와 <로열>이 이야기 길을 돌고 돌아 종착한 역은 바로 ‘인간’이란 말인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지금 이 시점에 왜 TV 드라마가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는 것이다.

무릇 TV 드라마는 TV를 통해 방송되는 극으로서, ‘서사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그 근간이 되는 대본은 ‘영상문학’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TV 드라마는 영상‘문학’으로서 문학의 기능을 일변 대신하기도 하는데, TV 드라마가 사회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식하며 비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바, <화크>와 <로열>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물음은 현 대한민국 사회에 묻는 하나의 사회적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화크>와 <로열>의 원산지는 2011년, 현 대한민국이지 않은가.

### 0.1% 인간의 주성분

자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신(新)카스트제도가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본을 통한 사회계급이 새롭게 짜여졌는데, 그 최상위층에는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힘인 ‘재벌’이 존재하며, 또 그 계층에는 그

재벌을 움직일 수 있는 사회 권력층이 공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인 ‘서민층’에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신의 집단보다, 자신보다 높은 계층에 대한 자연적 궁금증과 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일종의 관음증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른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문학 작품이나 영화와 달리 대가 없는 시청이 가능해 보다 대중적인 TV 드라마가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 <로열>의 배경은 JK그룹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최고의 그룹이며, 주축이 되는 등장인물은 JK그룹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인 ‘정가원’의 구성인물들이다. <화크> 역시 상위 0.1%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수신고를 배경으로 수신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극을 움직인다.

이처럼 두 작품은 흥미로운 소재인 ‘상위 0.1%’ 집단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상위 0.1%’의 삶이 아닌 ‘상위 0.1%’의 ‘인간성’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돈의 가치’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다. 돈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재벌’과 ‘사립고’에 속한 인간은 돈이 만들어낸 ‘최고 권력자’며 ‘최상위 집단’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두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냉정하리만큼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이다.

이는 그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화

크>에서 선생의 첫 번째 죽음(진수의 죽음을 제외하고)을 맞이하게 되는 등장인물들은 이상하리만큼 이성적이다. 선생의 사체를 본 아이들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범인을 의심하는 사이, 울거나 두려움에 떨어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다. 바로 다음 단계인 범인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이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데 골몰해 은사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공부하는 데에 24시간 중 18시간을 활용할 만큼 효용성을 따지는 수신고 아이들의 인간성을 확실히 묘사한 대목이다.

<로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JK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이며 공순호의 아들이자 인숙의 남편인 동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가원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그들의 인간성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 공순호는 인숙을 불러 혼전계약서의 이행을 묻고, 형제들은 인숙과 동호의 재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호와 인숙의 아들인 병준은 인숙에게 친권을 포기하고 돈을 받고 정가원을 나가라고 한다. 이는 재벌의 삶이 오로지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두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최상위 계층인 주된 인물들의 묘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최상위 계층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대변한 제작진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 계층 돌연변이의 등장

최상위층을 소재로 하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집단 다른 태생의 ‘돌연변이’가 등장하는데, <로열>의 김인숙과 <화크>의 이재규가 그러

하다. 김인숙은 JK가의 며느리로 정가원의 일원이지만 이름 대신 ‘K’라는 이니셜로 불릴 만큼 (그들이 정한) 로열 패밀리의 총족 조건에는 위배되는 출신(고아, 미천한 학벌, JK 계약직)이다. 이재규 역시 수신고에 떨어진 전력이 있지만 한 학생의 죽음으로 인한 공석에 대신 들어온 추가 입학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인숙은 JK가로부터 짓밟혔던 자신을 찾기 위해 JK를 두고 치열하게 싸워 결국 손에 넣는 과정을 통해 거짓 선민의식이 가득한 정가원의 치부를 드러내는 인물이며, 이재규는 등장인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한 번씩 찌른 칼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것’을 가해자들에게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즉, 집단에게 죄를 묻고 단죄하는 인물은 집단에 속한 또 다른 외부인인 셈이다.

하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김인숙과 이재규 역시 집단의 일원으로서 집단과 함께 ‘괴물’이 돼가는 과정을 겪는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들이 극의 중반까지 ‘선’의 위치에 있었다면 극의 중반부에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괴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집단의 태생은 이미 ‘괴물’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면, 외부인은 집단과 함께 어울리는 동시에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에 놓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태생적으로 집단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데, 김인숙이 끝내 아들인 조니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과 이재규가 요한이 가장 죄 많은 사람을 벌하기로 한 그 순간에 결국, 이 상황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자책으로 자신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김인숙과 이재규는 이미 집단에 속한 일원이라는 것과 이미 집단과 함께 괴물이 되었기에 집단과 외부인의 경계는 지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김인숙과 이재규라는 인물을 통해 상위 0.1%라는 집단이 ‘인간이 아닌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간의 유통기한

두 작품을 종합해보건대 0.1%의 상위층을 만들어내는 집단을 살펴보면 ‘가족(1% 부모) - 학교(수신고) - 사회(JK)’의 연쇄성을 지닌다. 이러한 구성단위는 사회집단의 구성단위로서 재벌 부모, 의사 부모의 자식이 수신고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 구성원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JK라는 기업에 입사하고 일원이 된다는 가정에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들고 도는 최상위층의 집단 속에서 태어난 괴물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자본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자란 괴물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사회의 악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야말로 결국은 두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자본의 보호막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해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쳐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가 되는데 성장 과정을 통해 한 인간의 인간성이 결정되곤 한다. 이러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가족뿐 아니라 친구, 학교 등등의 여러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을 키우는 데 사회라는 거대한 울타리는 부모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로열>과 <화크>는 사회라는 부모가 하나의 인간을 키우는 데 현 우리 사회는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로열>의 조현진은 유학 도중 맹장염에 걸려 공순호에게 전화하지만 공순호는 영어로 말하라고 말한다. 또한, 정가원의 며느리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대신 정가원 남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슴이 아리따운 여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성장하는 인간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기업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괴물로서 성장하게 마련이다.

<화크>의 등장인물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부모의 밑에서 (학교의) 기부천사라는 오명을 지닌 인간으로, 자타의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모범생으로, 자신의 여림을 속이기 위한 싸움꾼으로 길러진다.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기득권층인 부모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하고 그 괴물의 주인은 실상 기득권층을 만들어낸 사회라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다움을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의 유통기한은 사회라는 현실을 만나기까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찌면 드라마 <로열>과 <화크>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무방비한 사회의 무질서에 울리는 일종의 경종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TV 드라마가 말하는 인간의 증명

결국 <화크>가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초반의 흥미진진한 설정을 버리면서도 말하고 싶었던 것, <로열>이 재벌가의 암투라는 대중의 친숙한 코드라는 강점을 버리면서도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인간’이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지냈던 의문으로 돌아가보자. 2011년 현시점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TV 드라마인 <로열 패밀리>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왜 ‘인간성’이며 그것도 ‘0.1% 계층’에 속한 인간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말이다.

현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시민이 불의를 당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 것에 묵인하며, 사회 곳곳에선 자신의 이익을 불리기 위한 불법과

비리가 판치고 각종 흉악범죄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이러한 각종 흉악범죄들이 최상위층이라고 불리는 지식인층, 재벌층, 사회지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성의 결여’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것은 현 사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TV 드라마는 매체적 특성상 사회현상에 민감해야 하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해 관찰하고 고찰하며 결국 ‘인간’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많은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열광하며, 드라마가 그 어떤 장르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는 것은 ‘인간’과 밀접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벌가의 암투와 그 재벌들 속에서 자신이 인간임을 끊임 없이 증명해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MBC 드라마 <로열 패밀리>와,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해 과연 중범죄자들과 같은 괴물들은 태어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다룬 KBS 드라마 스페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현 사회를 대변하는 인간의 군상을 다룬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에서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했던 ‘인간’에 대한 증명이 과연 다양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상위 0.1%의 인물 군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천편일률적이다. 물론 극에서 갈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려내고 있는 집단에 드리운 비판적 시선은 자칫 잘못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의 장치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愚)에도 불구하고 <로열 패밀리>와 <화이트 크리스마스> 두 작품이 보여주는 성과는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현 사회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지점들을 영리하게 소재로 잡아 그것을 새로운 형식과 구성으로 보여줘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켜 드라마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나갔다는 것이다.

TV 드라마란 어느 영상문학 작품보다도 대중과 가까이에 있는 장르이다. 그렇기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제약도 있지만 대중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중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데 성공하고 TV 드라마로서 사회적 기능을 성실히 이행한 드라마 <로열 패밀리>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앞으로 또 다른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준 제작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다.